지역 소식통

제34회 정읍사문화제 '부도여인상' 추천 접수

(사)정읍사문화제 제전위원회(이사장 조택수)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제34회 정읍사문화제 부도여인상(婦道女人賞) 후보자 추천 접수를 받는다.

추천 대상은 5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도(婦道)의 마음이 투철하고 부덕(婦德)을 갖춰 사회적, 교육적 귀감이 되는 여성이다.

희망자는 읍·면·동장, 기관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접수기간 내에 (사)정읍사문화제 제전위원회 사무국에 직접 접수해야 한다. 부도상여인상 선발 취지에 어긋나거나 3번 이상 응모한 자는 선발에서 제외된다.

제전위원회는 실사위원과 심사위원을 위촉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상은 10월 28일 제34회 정읍사문화제 기념식 때 이뤄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정읍사문화제 제전위원회 홈페이지(www.jchf.or.kr)를 참고하거나 정읍사문화제 제전위원회 사무실(☎063-532-8880)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보건소, 아토피 관리 프로그램 진행

정읍시가 오는 20일부터 하반기 아토피 피부염 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프로그램은 아토피 피부 관리법, 생활 수칙 등에 관한 교육과 수딩젤 만들기 체험으로 등으로 구성됐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아토피피부염은 흔히 아이들에게만 생기는 것으로 인식돼 있지만, 만성 피부질환으로 성인 때 재발하기도 하고 스트레스 등 각종 환경 유해 물질 노출될 경우 성인 때 발생하기도 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아토피피부염은 삶의 질을 저하하는 대표적 질환"이라며 "계속해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시민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미서훈 독립운동가·후손 찾아요'

고창군, 9월부터 지역 독립운동가 발굴·서훈 국민 신청기간 운영

고창군이 지역출신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서훈신청을 위해 연말까지 군민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14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역출신으로 현재까지 독립운동에 참여하여 서훈을 받은 독립유공자는 101명이다.

하지만 고창군은 한말전북의병사 등 관련 자료상에는 아직까지도 공훈을 인정받지 못한 지역출신 독립운동가가 100여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창군은 관내 독립유공자 유족과 역사문화연구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독립운동가 발굴 및 서훈신청 전담조직(TF)을 꾸렸다.

금년 말까지 군민 신청기간을 운영하여 통한 자체 기본조사를 추진한 후 2024년도에는 연구용역 등을 추진해 미서훈 독립운동가에 대한 체계적인 공훈 발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고창군청 정재민 사회복지과장은 "우리지역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대한민국의 역사 속 "의향 고창"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군정소식지, 이장회의, SNS홍보 등을 통해 이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독립운동가 후손 상담과 제보는 고창군청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063-560-2274)으로 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의회 제301회 임시회 개회

15개소 현장방문 실시, 행정사무감사 특위 구성 등 총 46건의 의안 심사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0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운영위원회의△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발의: 조규철 의원), △고창군의회 사무과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발의: 박성만 의원) 등 4건, 자치행정위원회의△고창군 빈집 정비 및 활용 조례안(발의: 임종훈 의원) 등 31건, 산업건설위원회의△고창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발의: 이경신 의원) 등 9건의 각 상임위원회 소관 44건과 본회의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발의: 조규철), △'새만금잼버리 파행 전북 책임 전가 규탄' 결의안 등 2건, 총 46건의 의안을 심사하게 된다.

더불어 임시회 둘째날인 15일부터는 4일간에 걸쳐 고창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진채선 생가터 공원조성' 등 주요 사업장 15개소를 현장방문해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임정호 의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서 각종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가 급등하면서 군민들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기대응과 물가안정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서 군민들이 풍요로운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이선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잼버리 파행 전북 책임 전가 규탄' 결의안 등 2건, 총 46건의 의안을 심사하게 된다.

더불어 임시회 둘째날인 15일부터는 △정부는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라북도에 전가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 △정부는 새만금 개발사업과 잼버리 파행을 결부시키지 말고 대폭 삭감된 새만금 SOC 예산을 즉각 복원할 것, △정부는 잼버리 파행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차후 치러지는 국제행사에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대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이경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청소년 관련 시설들이 구축되었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 관련 시설의 집적화가 필요하다."며, "실내체육관, 게이트볼장 등과 청소년문화센터가 함께 있는 고창읍 교촌리 55-2번지 부지를 활용해 흩어져 있는 청소년 관련 시설을 이곳으로 이전해 청소년들의 이용 편익을 증진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명예읍면장 14명 위촉…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고창군이 14일 군정에 대한 조언과 의견을 수렴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행정구현을 위해 읍·면장 추천을 받은 지역 모범 군민 14명을 명예읍면장으로 위촉했다.

명예읍면장직 수행에 앞서 이날 9시 군청 2층 회의실에서는 심덕섭 고창군수, 임정호 고창군의회 군의장, 명예읍면장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이 열렸다.

이날 위촉된 명예 읍면장은 하루동안 주민상담과 의견수렴, 관내 주요 사업장과 불우 소외계층 방문 등의 활동을 펼쳤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어려움을 듣는 등 행정을 직접 체험하며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명예 읍면장은 박순자(고창읍), 강인성(고수면), 최희성(아산면), 김병태(무장면), 이경율(공음면), 이준재(상하면), 김경주(해리면), 유채호(성송면), 조대형(대산면), 김용조(심원면), 전일덕(흥덕면), 이택렬(성내면), 유동영(신림면), 최락효(부안면) 씨가 위촉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에 위촉된 분들은 각 읍면의 모범적인 분들로 1일 명예읍면장직을 수행하며,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린다"며 "고창군도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민과 항상 소통하는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기차타고 구절초꽃축제 즐기고 농촌체험하세요"

정읍시, 알로에 보습제 만들기·구절초꽃축제·쌍화차 거리 등 방문

정읍시가 구절초꽃축제 기간에 맞춰 농촌체험 기차여행 프로그램 "농뚜레일"을 운영한다.

"농뚜레일"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촌진흥청과 한국철도공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논두렁, 두레, 레일(rail) 등 농촌과 철도가 연상되는 단어를 조합해 "농촌과 철도의 연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신청은 '렛츠코레일' 사이트에서 10월 5일까지 할 수 있으며 가격은 9만 2000원(왕복 기차표, 중식 포함)이다.

시는 농촌체험농장 '알로에 사랑'에서 알로에 보습제 만들기 체험과 구절초꽃축제 관람, 정읍9경 중 하나인 쌍화차 거리 등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여행코스를 구성했다. 보습제만들기 체험비는 시에서 전액 부담한다.

이학수 시장은 "철도 접근성이 좋은 정읍의 이점을 활용해 구절초 꽃축제와 농촌체험을 연계한 기차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많은 관광객이 정읍을 방문해 가을 정취를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해양경찰, 추석 해양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 운영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성기주)는 추석 명절 연휴를 맞아 오는 10월 3일까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3년간 추석 연휴 기간에 관내 여객선 평균 이용객은 5,100여 명으로, 평소(1,900여 명)보다 약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낚시어선 이용객 또한 평균 2,300여 명으로 평소(1,100여 명)보다 약 47% 증가했다.

특히 해양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27일까지 안전점검 및 계도·홍보 위주의 활동을 전개하고, 서장과 과장들은 다중이용선박, 임해중요시설, 관내 취약 항·포구와 연안해역을 점검해 안전상태와 취약요소를 파악하고 구조세력 대응태세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본격적인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는 비상대응 근무에 돌입한다. 추석 연휴 기간 귀성객 수송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항로에 경비함정을 전진 배치하고 구조대, 파출소 등의 구조세력은 비상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성기주 서장은 "6일간 이어지는 황금연휴에 고향을 방문하거나 여행을 즐기러 많은 국민이 관내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긴급상황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부안군, 조류인플루엔자 가축방역 가상훈련 실시

부안군은 제1종 가축전염병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초동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조류인플루엔자 가축방역 가상훈련(CPX)을 14일 행안면 스포츠파크 제2주차장에서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 훈련은 전북도가 주최하고 부안군이 주관한 훈련으로 실전과 같은 현장훈련을 위해 실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방역주체인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방서, 보건소, 고창부안축협 등 유관기관의 협조로 훈련이 진행되었다.

훈련을 참관한 축산농가와 축산 관계자들은 방역주체들의 현장 시연을 볼수 있었고 현장에서 보여줄수 없는 부분은 무대의 스크린으로 사전 촬영 영상, 훈련자료 등을 통해 훈련 내용을 숙지하였다.

이정석 부안 부군수는 "이번 훈련을 통해 방역주체인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 하였고 축산 생산자들에게는 방역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되새기는 훈련이 되었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